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24째주 (6월 13일)

정교회 주보



성 모니카

제 1차 세계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아길리나 순교자

제 6조,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 1,2,3 응송 / 사도경 78~80
- 승천 축일 찬양송 / 오순절 예식서 77
- 승천 축일 입당송 / 오순절 예식서 79
- 제 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성 교부들 찬양송 / 오순절 예식서 82
- 성당 찬양송
- 승천 축일 시기송 / 오순절 예식서 80
- 사도경 : 사도행전 20:16~18, 28~36 / 260, 봉독서 84
- 복음경 : 요한 17:1~13 / 105, B 29
- 승천 축일 성모송 / B 328
- 승천 축일 영성체송 / 오순절 예식서 81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승천 축일 찬양송’ / 오순절 예식서 77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모니카

우리 교회에서 6월 15일 축일로 기념하는 모니카 성녀는 성 아우구스티노스의 어머니로, 332년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에서 하느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지역사령관 파트리키오스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모니카 성녀의 끊임없는 기도에 짜증을 내었고 자선에 대해 과도하다고 생각했으며 병자들을 방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녀는 남편이 아이들의 세례를 반대하였을 때도, 남편과 두 아이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기도로 대처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적 기질과

도덕적 가치관의 차이에 저항하지 않았습다. 그녀는 사람에게에는 불가능한 일도 하느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인내하며 대처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녀의 기도를 하느님께서서는 들어주셔서 남편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주셨고 파트리키오스는 16년 후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고 371년에 평화롭게 안식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들 아우구스티노스는 387년 부활절에 밀라노의 대주교 성 암브로시오스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며 그 때 모니카 성녀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성녀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 투쟁하였다고 느꼈으며 아프리카로 돌아와 잠시 병을 앓다가 평화롭게 안식하였습니다.

쓰지만 단맛이 나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에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첫 순교자가 된 성 스테파노스의 예를 보겠습니다. 스테파노스 대보제의 순교적 죽음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박해 후 그리스도인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티오키아로 흩어졌습니다.(사도행전8:1, 11:9) 사람들은 교회의 적들이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파괴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때 복음말씀의 놀라운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은, 만약 박해로 인한 스테파노스의 순교가 없었다면, 복음말씀의 가르침은 ‘팔레스타인 지역 내부’에만 머물렀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쓰지만 단맛이 나는 결과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어떤 슬픈 일을 겪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을 때 분개하지 맙시다. 혹 답변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지상에서, 즉 하나님이 계신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자수’를 봅니다. 이 편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매듭들, 이상한 현상들과 이해할 수 없는 복합물들에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수’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순간이 오면 그 때 우리는 뒷면에서 보았던 모든 매듭과 이상한 현상들이 바로 앞면의 디자인, 목적, 조화에 기여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해 가끔 우리를 분개하게 하는 고

통들, 시련들, 질병들, 삶의 위험한 경우들과 같은 이 삶에서 풀리지 않는 ‘매듭들’은 지혜로운 ‘바느질’로 입증되어질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여기에는 하느님의 손에 의한 우리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한 밤중에 하늘을 바라볼 때 빛나는 별을 본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슬픔은 많은 경우 우리의 눈길을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주여, 우리는 곤경에 빠져 당신을 찾았습니다.”(이사야26:16)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든 것에 문제가 없이 잘 되어가면 하느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 와서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럴 때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요한복서3:17)라는 말씀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도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로마서5:3~5)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슬픔은 인내를 낳습니다. 신자들의 인내는 상황에 대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용감한 태도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내구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그때 희망이 생깁니다. 이 희망은 절대 우리를 부인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자로 만듭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연기(延期)[뒤로 미루다]라는 나무는 어느 나라에서도 자라지 않는다."

간신히 하루가 시작되고 나면... 벌써 저녁 6시입니다.
가까스로 월요일에 다다르자... 곧 금요일입니다.
... 그리고 한 달이 불쑥 지나고,
... 한 해가 벌써 기울어가고,
... 이미 나이는 40, 50 아니면 60이 지나갑니다.

자, 그러니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즐기도록 힘
써봅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봅시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맛보고, 마음에 행복이 느껴지도록 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마음의 평온함
과 평정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나중에’, ‘이따가’, ‘...후에’ 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도 하지 맙시다.

우리는 흔히 마치 앞날이 우리의 것인 양 모든 것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예배는 끝나버리고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뒤바뀌고

나중에, 아이들은 자라나고

나중에, 부모님은 늙거나 돌아가시고

나중에, 약속은 잊혀지고

나중에, 낮은 밤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삶은 끝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 어떤 것도 뒤로 미루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좋은 의도와 생각을 뒤로 미루게 되면, 우리는 가장 좋은 순간과 가장 좋은 경험과 가
장 좋은 친구와 가장 좋은 가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영혼토요일

6월 19일(토)은 큰 축일인 오순절 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선조들을 기억하는 영혼토요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기억하는 추도식을 성찬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풀리바를 준비하여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활절 종례일 밤 예배

서울 성 니콜라스 주교좌 대성당에서는 지난 6월 8일 화요일 밤에 부활절 종례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로만 카프작 사제, 안토니오스 임

종훈 사제, 요한 박인곤 보제의 집전으로 부활절 밤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마지막 부활 찬양송을 찬양하면서 40일간의 부활경축기간을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없이 모두가 함께 한자리에서 부활축일과 경축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크리스토퍼 신부 출국

지난 6월 7일(월)에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에서 봉직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신부가 가족과 함께 고향인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한국에 오신 후 처음으로, 또 셋째 아이 탄생 후 방문하는 것으로, 무사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간예식



6월 19일(토) 영혼 토요일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